

みんなくりポジトリ

国立民族学博物館学術情報リポジトリ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展示デザインについて

メタデータ	言語: jpn 出版者: 公開日: 2009-04-28 キーワード (Ja): キーワード (En): 作成者: 大野木, 啓人 メールアドレス: 所属:
URL	https://doi.org/10.15021/00001868

展示デザインについて

大野木 啓人

振り返りますと、私が今まで国立民族学博物館で手がけた特別展・企画展も随分多くなってきたように思われます。第1回目の「赤道アフリカの仮面」から始まり、「鳥居龍蔵のみたアジア」「ラテンアメリカの音楽と楽器」「異文化へのまなざし」「みんなくミュージアム劇場」と今回の「2002年ソウルスタイル」で6回目にあたります。それぞれまったく異なる手法と取り入れて楽しく展開できたことは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それはいつもデザインする時、実験と冒険の繰り返しだと思ってやってきたからかも知れません。その時々テーマに沿って、今求められるものをどのように取り入れるかを考えながら、過去の蓄積を生かしたよりあたらしい展示を模索して来ました。

今回、この話が入って二年ほどなりますが、当初は非常に難しいと思いました。実際に、ソウルに赴いて現地を見てまいりました。日本とどこが違うだろう。どれをまたどう表現するか、深く追求すればするほどその違いが見えなくなってきたのです。特に普段の生活スタイルは日本とほとんど見た目には違いはありませんでした。強いて言えば食の味の違いと、もうひとつは、日本人とは感覚的な感性の違いぐらいだったと思います。このことは、これまでの展示ではなかなか表現しきれない難しい課題でありました。むしろ避けてきたと言えるでしょう。それをどのように取り入れるかをこのプロジェクトの中で討議してまいりました。当初は五感に訴える方法でソウルを体感してもらう展示にならないかと模索をしました。迫り来るハングル文字、市場の雑踏とにおい、食べ物、趣味嗜好や倫理観等です。ところがこの命題を一つ一つ紐解くことは出来得ても全体の統一感や、味わう展示の難しさ、説明でなく感じてもらう倫理観や触覚的空間感等、解決に困難な諸問題の壁は決して小さくはなかったのです。何よりもあの制限された展示会場で「現在のソウル」を表現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う事です。

そこで最初はソウル市内の一般家庭の再現を、住居を中心に具体例としてあげ、そこを中核にしなが、その社会背景や、街の表情を表そうと試みました。そのため住宅展示場のモデルハウスの再現やテレビスタジオではホームドラマのセットをそのまま移すとか現実の市場の具現化等、いくつかの方法で可能性を探りました。

それを李さん一家という素晴らしい素材が浮び上がってきた事によって一気に新しい展開をみせたのです。それは今まで「もの」を追い求めてきた我々にとって、ひとの提供という思いもかけない素材が含まれていたのです。ひとの提供とはプライベートな個人の生活資材を全てさらけ出すということです。全てを見せることによって、個人の内面を探ろうとするまさにいまの实在の人間紹介展へと発展したのです。おかげ様で全体の展示の核を李さん一家に置くことが出来ました。もし、李さんの協力がなければ、ま

まったく違った展示になっていたと思われます。今回は不可能としか思えない、奇跡的な李さん一家の協力によって一家全てが展示できたことはまことにラッキーでした。

一家だけでソウルの今の生活が語れるのか、なぜそれがソウルなのかと色々問題があるにせよ、それは今まで行われた展示手法とは異なる新しい実験の場であったのです。まさに真正銘事実としてソウルスタイルなのです。事実から学び取る事でそのもの一つ一つからまだまだ見えていないソウルスタイルが無尽蔵に隠されていると思われます。今後益々高く評価されることだろうと思います。

さて、一階の李さん一家を中心とした展示には、当初展示案は三つありました。

一つは李さん一家の一人一人の生活を区分化し、社会全体を中心においてその社会からそれぞれ家族の人間の関わりを関連付けてみようという方法を表したものです。中心に社会を置き、そこから外周の個人を見るというかなり大胆な発想を取り入れたレイアウトです。通常の世界と家庭の概念的な位置関係を逆転させることで、李さん一家の個人の人間性や個性や価値観等をより大きく、はっきりと捉えられないかを試みたのです。

二つ目はそれとは逆に中心に家族を置き、外周に社会を配置する案です。各個人を家庭の構成員として捉え、その構造をそれぞれの部屋とそれぞれの生活の世界として浮かびあがらすことで個人の持つライフスタイルを明確にし、その延長上に社会を持つてくるというレイアウトです。展示意図からしますと一番近い考え方になったと思われます。

三つ目は二つ目と似ていますが一家の構成要素をよりリアルなものにして個人そのものより「もの」の位置関係に主眼を置いた展示方法です。これは、ものの位置関係が家族の構成要素に大きく関連づいたものであるとの判断と、ものが置かれている事には必ず必然性があり、より家族の生活スタイルを現実化して見る人に興味をそそるよう配慮した事です。そして二つ目と同じように、外周にそれぞれ個人の社会を関連付けたレイアウトとなりました。

結果、第三番目の案で行くことになりました。それには幾つかの利点ももっておりまして。この特展会場は二階が吹き抜けになっており、外周が円形です。この様な企画展示会場は類稀なのですがそれを生かして李さん一家の現状をリアルに二階から鳥瞰できること。外周が弧を描くことで円の中心という一家の位置付けが明快に出来たこと。韓国では日本と同じように家に入る時靴を脱ぐということ等が挙げられます。反面、この建物は中央に大きな階段があり、展示スペースに太い丸柱が四本あります。これは空間にかなり大きく存在し、かつ違和感があります。デザインするにあたりこの問題は毎回頭を悩ませますが、一家のレイアウトを正面性をもたさず少しずらしたり、さりげなく丸柱を隠すことで解決したつもりです。

また今回は参加型の展示ということでも随分討議してきたように思います。参加型と言いますのは仕掛けがあって、それにしたがって、観客が自ら行動を起こし、表現内容を変化させ、視点が変わることだと思えます。二階の展示で試みましたが試着コーナーや

ハングル文字の子供の遊具で楽しんでもらう事もそのひとつです。一階の李さん家では、あるがまま展示をしてあっただけなのですが、それを覗き込んだり、開けてみたり、においをかいでみたり、触って、個人のプライベートを覗き込み、そこから、いまのソウルを解釈しようとする、個人を理解しようとする。そのように仕掛けられていたと言えるでしょう。これはこれまでの作られた参加型の展示とは違い、観客が自ら進んで見ていかなければ何も見えてこない、見れば見るほど発見があり、深く見るほど楽しくなるという新しい参加型展示であったと言えるでしょう。

一階の盛り沢山な展示に対し、二階は人生儀礼を通して、韓国人のこだわりの部分が見せられ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一階から靴を脱いだままの思い切った手法でしたが、くつろぎながら、ゆったりとした気分で適当に腰を掛けたり、衣裳を着て写真を撮っている姿には、堅苦しさから開放されたなごやかな鑑賞風景があったと思います。

展示内容に関しては寄せ集めの感がありましたが、逆に、一階との違いが展覧会全体にとっては、程よい構成バランスになっていたように思われます。

展示デザインというものも他のものづくりと同じで、何回やっても満足のゆくものはなかなか出来ません。全ての要求を満たし、全ての人に納得してもらえようすることは不可能でしょう。今回行われた内容は、我々デザイナーにとってもまた研究者の先生方にとっても、問題点もありましたが、新しい発見を随分したように思います。

展示を研究対象として論じられて来たのはつい最近です。展示デザインの歴史はまだこれからなのです。

これからの新しい展示方法というのは、まさにメッセージを送る側とそれを受け止める鑑賞者側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密度にあると思われれます。一方通行でない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どう仕掛けるか、人を感動させ、来てよかった、観てよかったと思ってもらえるにはどう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

それに答えるのが我々展示デザイナーに課せられた役割でないかと思っております。

전시 디자인에 대해서

大野木 啓人

돌아보면, 제가 지금까지 담당해온 국립 민족학 박물관에서의 기획전도 꽤 많아진 듯 합니다. 제1회째의 「적도 아프리카의 가면」으로부터 시작하여, 「鳥居龍藏가 본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음악과 악기」, 「이문화에의 시선」, 「민박 뮤지엄 극장」과 이번의 「2002년 서울 스타일」로 6번째가 됩니다. 각각 전혀 다른 수법을 도입하여 즐겁게 전개되었던 점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디자인할 때, 실험과 모험의 반복이라고 생각하며 해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때의 테마에 따라, 지금 원해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도입할까를 생각하면서, 과거의 축적을 살려가기 보다는 새로운 전시를 모색하여 왔습니다.

이번의 이 이야기가 나온지 2년 정도가 됩니다만, 당초에는 무척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가서 현지를 보고 왔습니다. 일본과 어디가 다를까. 어디를 어떻게 표현할까, 깊게 추구하면 할수록 그 다른 점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평소의 생활 스타일은 그냥 보기에는 일본과 거의 다르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음식의 맛이 다른 점과, 또 하나는, 일본인과는 감각적인 감성의 다른 점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전시에서는 좀처럼 표현해낼 수 없는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오히려 피해왔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이 프로젝트에서 토의하여 왔습니다. 당초에는 오감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서울을 체험하게 하는 전시가 될 수는 없을까하고 모색하였습니다. 다가오는 한글 문자, 시장의 혼잡함과 냄새, 음식물의 맛, 취미 기호와 윤리관 등입니다. 그러나 그 명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전체의 통일감이나 맛이 느껴지는 전시의 어려움, 설명이 아닌 느껴질 수 있는 윤리관이나 촉감적 공간감 등, 해결하기 곤란한 제문제의 벽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제한된 전시회장에서 「현재의 서울」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거기에서, 처음에는 서울시내의 일반가정의 재현을, 주거를 중심으로 구체적 예로 하여, 그곳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 사회배경과 거리의 표정을 표현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그를 위해, 주택전시장의 모델하우스의 재현이나 텔레비전 스튜디오의 홈드라마 셋트를 그대로 이동시켜보는 방법이라든지, 현실의 시장의 구현화 등, 몇 가지의 방법으로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그것을 이선생 일가라는 멋진 소재가 떠오른 것에 의해 한번에 새로운 전개를 보인 것입니다. 그건, 지금까지 「사물」을 찾아 온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제공이라는 생각도 해보지 못한 소재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제공이란,

사생활적인 개인의 생활자재를 모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전부를 보여주는 것에 의해, 개인의 내면을 찾아내고자 하는, 바로 현재의 실재의 인간 소개전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덕분에 전체의 전시의 핵을 이선생 일가에 두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이선생의 협력이 없었다면 전혀 다른 전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던, 기적적인 이선생 일가의 협력에 의해 한집의 전체가 전시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운이 좋았던 일입니다.

한집만으로 서울의 지금의 생활이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인가, 왜 그것이 서울인가, 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해도, 그것이 지금까지 행해져 온 전시수법과는 다른 새로운 실험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바로 거짓없는 사실로서의 서울 스타일인 것입니다. 사실에서 배어나가는 것으로 그 하나하나부터 아직 보여지지 않는 서울 스타일이 무진장하게 숨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더욱 더 평가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 층의 이선생 일가를 중심으로 한 전시에는, 당초 전시안은 세가지 있었습니다.

하나, 이선생 일가의 한사람 한사람의 생활을 구별화하여, 사회전체를 중심으로 두고 그 사회로부터의 각각의 가족의 인간 관계를 연관시켜 보자고 하는 방법을 표현한 것입니다. 중심에 사회를 두고, 거기에서 외부주위의 개인을 보는 것이라는, 상당히 대담한 발상을 도입한 레이아웃입니다. 통상의 사회와 가정의 개념적 위치관계를 역전시키는 것으로 이선생 일가의 개인의 인간성과 개성, 가치관 등을 보다 크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하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과는 거꾸로 중심에 가족을 두고, 외부주위에 사회를 배치하는 안입니다. 각 개인을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하여, 그 구조를 각각의 방과 각각의 생활의 세계로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개인이 지닌 라이프 스타일을 명확히 하고, 그 연장상에 사회를 두게 하는 레이아웃입니다. 전시의도에 가장 가까운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와 비슷하지만, 일가의 구성요소를 보다 리얼한 것으로 하여 개인 그자체보다는 「사물」의 위치관계에 주안을 둔 전시방법입니다. 이것은, 사물의 위치관계가 가족의 구성요소에 크게 관련된다고 하는 판단과, 사물이 놓여져 있는 것에는 반드시 필연성이 있고, 보다 가족의 생활스타일을 현실화하여 보는 사람에게 흥미를 불러 일으키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같은 식으로, 외부주위에 각각의 개인의 사회를 관련지은 레이아웃이 되었습니다.

결과, 세 번째의 안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몇가지의 이점도 있었습니다. 이 특전회장은 이층이 증정형식으로 되어있고, 외측둘레가 원형입니다. 이러한 기획전시회장은 흔하지 않지만, 그 점을 살려 이층 일가의 현재상태를 리얼하게 이층으로부터 조감할 수 있다는 점. 외측둘레가 활곡선을 그리는 모양이란 점에서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일가의 위치가 명확하게 표현되는 점. 한국에서는 일본과 같이 집에 들어갈 때에는 신발을 벗습니다. 반면, 이 건물은 중앙에 커다란 계단이 있고, 전시 공간에는 두꺼운 원통형 기둥이 4개 있습니다. 이것은 공간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며, 또한 위화감이 있습니다.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는 매번 머리를 아프게 했습니다만, 일가의 레이아웃을 정면성을 무시하고 조금 수정하여, 원통형 기둥을 숨기는 것으로 해결되도록 하였습니다.

또 이번은 참가형의 전시라고 하는 것으로도 상당히 토의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참가형이란, 어떤 장치가 있고, 그것에 따라 관객이 스스로 행동을 하게 하여, 표현내용을 변화시키고 시점이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층의 전시에서 시도한 시차 코너와 한글문자의 어린이 장난감으로 즐기게 하는 것 등이 그 하나입니다. 일층의 이선생 집에서는, 그저 전시만을 하고 있었으나, 그것을 들여본다거나, 열어본다거나, 놓아본다거나 하면서, 만지고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지금의 서울을 해석하고자 하는, 개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장치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만들어졌던 참가형의 전시회와는 달리, 관객이 스스로 진행해 나가며 보지않으면 아무것도 보여져지지 않는, 보면 볼수록 발견이 있으며, 깊게 볼수록 재미있어진다고 하는 새로운 참가형 전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층의 풍부한 전시에 비해, 이층은 인생의례를 통해서, 한국인이 집착하는 부분이 보여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하고 생각합니다. 일층에서부터 신발을 벗는다는 대담한 수법이었습니다만, 편안해지면서 여유있는 기분으로 적당히 앉거나,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에는, 딱딱함으로부터 개방된 부드러운 감상풍경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시내용에 관해서는 너무 많아 잡다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도 있었습니다만, 거꾸로 일층과는 다른 점이 전람회 전체에 있어서는, 적당한 구성 밸런스를 이루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시 디자인이라는 것도 다른 사물을 만드는 일과 마찬가지로, 몇 번 해도 만족할 만한 것은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고,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행해진 내용은, 우리들 디자이너에게 있어서는 또 연구자 선생님들에게 있어서도,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발견을 상당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시를 연구대상으로서 논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에 일입니다. 전시 디자인의 역사는 이제부터인 것입니다.

이제부터의 새로운 전시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메시지를 보내는 측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감상자 측의 커뮤니케이션의 밀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방통행이 아닌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사람을 감동시키고, 와서 참 좋았다, 봐서 좋았다고 생각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에 답하는 것이 우리들 전시 디자이너에게 부여된 역할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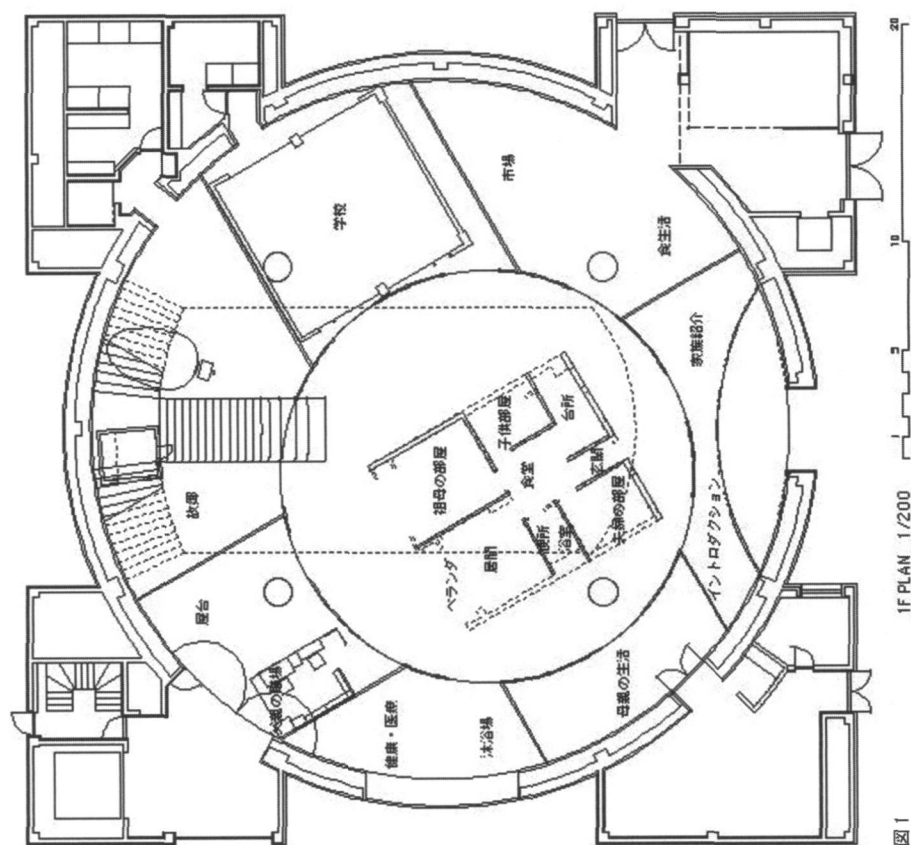


図 1

